

전신성 흥반성 루푸스에 병발한 Aspergillosis 2 예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김현수, 홍연식, 김완우, 민준기, 이성현, 박성환, 조칠수, 김호연

Aspergillus 감염은 재생불량성빈혈이나 항암요법중인 암환자, 장기이식환자에서 흔히 합병되는것으로 전신성 흥반성 루푸스 환자에서는 드물게 보고되었다. 전신성 흥반성 루푸스 환자에서 Aspergillus 감염은 80%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중증감염으로써 주로 활동성의 질환을 가지면서 스테로이드제제나 면역억제제를 사용중인 환자에서 발생하며 임상양상의 비특이성으로 조기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저자들은 전신성 흥반성 루푸스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중에 발생한 Aspergillosis 2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 4년 전부터 전신성 흥반성 루푸스로 치료중이던 18세여자가 5일간의 발열과 감소된 의식상태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안면부에 접상 피부발진을 보였고 우측 하부 폐야에서 수포음이 들렸다. 의식상태는 반흔수상태였고 동공반사는 정상이었다. 말초혈액검사상 혈소판이 $48,000/mm^3$ 으로 감소되어 있었고 면역학적 검사상 C3 9.3 mg/dl, C4 7.3 mg/dl, 형광항핵항체 1:160(speckled pattern), 항 ds DNA 항체 9 IU/ml, 항 cardiolipin 항체 음성, 루푸스 항 응고인자 음성이었다. 뇌척수액검사는 정상이었고 캐답도 말검사에서 AFB 양성을 보였다. 단순흉부촬영상 우측 폐 하엽에 증가된 융영이 보였다. 환자는 중추신경계 루푸스와 결핵성 폐렴진단으로 스테로이드 충격치료후 의식상태는 정상으로 되었으나 항생제와 항결핵제투여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진행되면서 발열이 지속되었다.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여 폐포세척한 후 *Aspergillus fumigatus*가 배양되었다. 경기관지 폐 생검상 Aspergillosis로 진단되어 2개월간 Amphotericin B 투여후 폐렴이 호전되었다.

증례 2 : 49세 여자환자가 발열,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환자는 1년전부터 당뇨로 경구 혈당강하제를 복용중이었다.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 $2,000/mm^3$, 혈색소 12.5 g/dl, 혈소판 $57,000/mm^3$ 이었고 단백뇨가 하루 3.3g 검출되었다. 면역학적 검사상 C3 24.5 mg/dl, C4 8.8 mg/dl, 형광항핵항체 1:640 (homogeneous pattern), 항 ds DNA 항체 50 IU/ml 이상이었다. 단순흉부촬영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전신성 흥반성 루푸스로 진단하고 항생제와 함께 prednisolone 60 mg/day을 투여하였다. 그러나 기침이 지속되면서 단순흉부촬영상 양측 폐야로 진행하는 망상 결절성 융영이 보였다. 캐답검사상 균사가 발견되었고 경기관지 폐 생검상 Aspergillosis로 진단되어 Amphotericin B 를 투여했으나 전신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내원 26일째 사망하였다.